대학원생 세미나 04.02.13

Jarvis, Darryl SL.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defending the discipline.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2000

이규원: 포스트모던, 모더니티의 수정주의로 봤었음. 기존의 근대주의/포스트 모던의 대화가 잘 안 됨. 둘의 대화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잘 안 됨. Jarvis, IR에서의 존재론은 정리해놓되, 존재론에서는 다 한계를 지었으니까 인식론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쿤, 라카토스, 포퍼 등의 글을 읽으면.. 지식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인식하는 것의 차이가 있음. 포스트모더니즘은 reality가 없다. 현실주의는 있다. 존재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IR의 학파가 다양함. 어디서부터 이를 규정할 수 있을까?

용채영: 저자도 상호간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지적, IR내에선 합의되었다고 하고 다원주의 등 방법론적 접근법의 다원주의를 통해 대화하자고 하는데 이를 합의라고 말하기 어려움. 존재론/인식론의 층위에서는 다원주의? 인정이 안 됨.

이규원: Buzan, International Security. 넓은 영역에서의 정의 넓게 하자. 다들 추세가 다원주의로 가자? 학계의 주류 의견인지?

최인호: 여전히 정리 안 됨. 따라서 메타 이론을 논의하는데, 존재론, 인식론 등 그 중의 하나가 목적론이다. 서로 다른 목적들 사이의 관계도 메타 이론을 통해 논의. 하지만 메타 존재론, 메타 인식론은 잘 모르겠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실증주의가 적절한 존재의 영역이 있고, 탈근대론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존재의 영역이 있고. 이를 할당할 수 있는가 있다고 함. 국가가 변화하는 것을 탈근대론으로 이론화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탈근대론이 이론화할 수 있는 것인지? 탈근대론이 여러가지가 있고, Critical, Postmodernism, 경제, 문화 영역 사이를 같이 보고. 경제-문화가 더 지배되는 이야기들이 있음. 그게 탈근대론이냐? Actor가 변화하는 것은 굳이 그것을 탈근대론, 리오타르. 여전히 인식론의 문제고 존재를 상정할 때 머리를 어떻게 인식? 존재론까지 가기 전에서 언어체계에서 구성되는지. 그걸 더 이야기해주는 듯. 더 핵심적인 부분인 듯. 변화, 실제. 현실에서의 변화를 탈근대론의 이론으로 뭔가 할 수 있다가 잘 와닿지 않음. 탈근대론의 핵심적인 기여는 반성적인 부분임. Jarvis의 논의 잘 이해 안 됨. 담론, 사람을 구속하는 효과. 새로운 언어를 획득할 것인가의 시각. 이를 단순히 해체주의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reconstruct 해야 함.

최인호: 복잡계/네트워크. 존재론을 비판. 존재의 성격 자체, 입자가 있고 파동이 있음. 고정된 실체가 없음. 이 자체도 존재의 기본적 성격을 가정. 존재에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임. 존재론적인 설명임. 탈근대론으로 하면 성격이 다름. 인간 주체의 인식기제에 대해서 focus. 인간을 뛰어넘어서 세계 자체의 존재의 성격을 물어보는 것은 다름.

최인호: 반성을 하고 내려와서 보면 세계가 다름. 존재론적인 가정을 보면. 인식론적인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론을 만들게 해준다. 그 정도로 정리됨. 그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만든 세계도 잘 따라감.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언어적 반성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줌.

이규원: 포스트모더니즘의 목적은 처음엔 존재론 비판 아님?

최인호: 애당초 존재 안 정해짐. 그림을 다 다시 그리게 되는 파트. 탈 근대론만으로도 안 됨. 여전히 다시 실증주의로 와야 함. 다시 modeling을 해야 함. 글 쓰는데 이론인지 잘 모르겠음.

최인호: 반성의 방법이 다른 부분은 있음. 포스트모던은 인간의 agency, morality를 가능하지 않다고 봄.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morality의 근원은 찾을 수 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이론, 지식, power의 영향을 받음. 우리의 morality개발, 반성해서 합리적, 이론으로 만듬. 반성주의와 다름. 기반, 주체라는 도덕적 주체의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비판. 스스로에 대한 자가반성인 반면. 포스트모던은 인간의 주체적 agency가 다 강한 회의가 있음. 언어, 인간이 아닌 것에서 제약받고 있는다고 봄. 언어적 속박을 풀지 않고 도덕성, 자아에 기반하기 어려움. 회의주의는 공유하되. 그런 차이는 있음.

규원: 언어적 속박, 인간외적인 제약이 있다고 함. 그럼 리오타르, rule, 언어게임. 그것을 굳이 차용하면 다른 언어게임, 제약.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대안을 찾는 것이 다르다? 자신의 이론, national-interest는 다름. Lacan? 인간 자체를 별로. 회의주의도 다양. 종교적 회의도 다름.

이규원: 모든 사상적인 시작. Realism에서도 보듯. 엄청 크게 던져두고, Waltz가 구조로 가자. 하나의 분파로 가면 나뉘어 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하나로 focusing이 안 나왔다? 논의의 시발점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짐.

채영: 해체의 목적? 포스트모던 접근법 추구하는 IR학자들, 포스트모던 이론가들 사이도 다 동의하지 않음.

최인호: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맑시스트의 해방은 아님.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뭘 열심히 했을 때 해방적인 요소는 있음. 실재계, 주이상스. 죽음?? 해방의 논의가 다름. 맑스주의는 공산주의 사회 만들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이 다 다름. 인간해방. 말과 사물 서문. 왜 나를 라캉이랑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 핵심이론가들의 문제의식이 뭔지.

라깡 이런 사람들이 이렇다. 언어, 상징계, 구속. 언어의 생각을 매개? 그렇다고 해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는 아님. 나는 내 나름 스스로 언어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생각하지 언어가 나를 구성하나? 왜 그게 그렇게까지 가나?

일상? 언어의 기원, 구속성. 언어로 다 소급되지 않음. 포스트모던 너무 어렵게 간다? 언어를 강조하다가... 몸의 철학. 몸이라는 것은 주어져있고 분석가능. 어렵다. Wight의 Why there is no International Theory의 논문이 생각남. 정치이론은 ~한 계보가 있는데 국제정치학에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 IR에서는 뭐가 없다. Political theory는 규범적인 대부분인 것이 있음. 정치의 ‘이치’라는 것이 있다. 규범.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우리가 political argument로 규범적 주장을 하는 것. 경전을 읽는 것. 인의예지.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삶에 부합이 됨. 이치에 위치를 획득. 그게 없다는 이야기. Wight의 이야기는. 단순한 분석이론과 상관없이. 홉스. 주권국가=principle. 그런 식으로 정치의 이치에 해당하는 규범이론?

마키아벨리? 전통적 규범이론이 아님. Anti-규범이론. 기독교적인 상황에서 깨고 권모술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prince의 덕이라는 이야기. 마키아벨리의 이론을 국제정치이론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함. Theory=규범이론(Wight?) 사대자소=organizing principle. 조직원리라는 것, anarchy가 이론이면 아님. 이건 anarchy는 이론이 아님.

이규원: 국가/국제? 사대자소. 이는 legitimacy가 있음. 텍스트화가 안되서 그렇지. 국제사회도 hegemony가 hegemony가 있나?